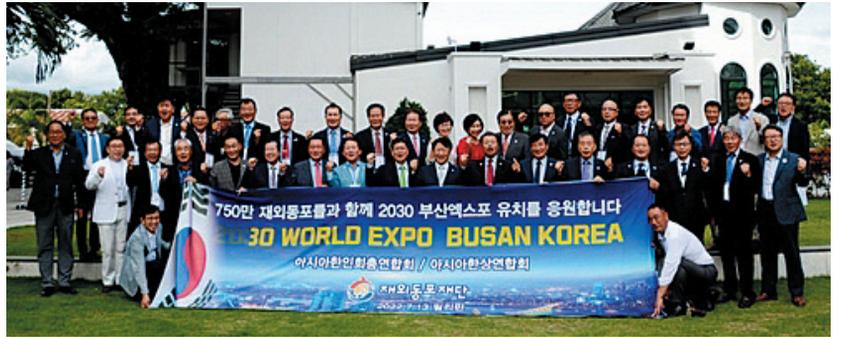




특집 _ 프랑스 · 아시아 한인 동포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 보탤다
 기획 _ 스페인 방문 윤석열 대통령,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
 화제 _ 필리핀 동포 노숙인 돕는 박일경 회장 "6년간 172명 구조"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맞손’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침으로 오랜만이다. 한글학교 교사들을 만나러 전북 전주로 가는 차를 타고 빗길을 달린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유쾌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마음이 벌써 설렌다. 한글학교 교사 연수 강의에 처음 초청받았던 그 여름에도 오늘처럼 비가 왔었다.

해외 대학 교원 대상 연수를 주로 해오던 2005년 여름, 한 통화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해 가을 남미에서 개최되는 한글학교 교사 연수에 초청된 ‘현장 초짜’ 교수인 나에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싶었던 게다. 빗속을 가르며 도착한 사무실에는 연수 주관 재단의 노련한 현장 교사 출신 이사가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봤다. 재외동포 교사들과 나의 오랜 인연이 이렇게 시작됐다.

덕분에 무엇이 필요인지, 무엇이 아쉬운지 현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전 세계 재외동포 교사 연수회의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또 한국 정부에서 공급하는 한글학교 교재 개발에 집중하는 기회도 얻었다. 2008년 연구년이 끝날 무렵에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청소년용 교재도 세상에 내놓았다.

오늘 다시 빗길을 달리면서 오랜 인연의 시작을 떠올리고 현장과의 깊은 교감을 회고하니, 재외동포 교사들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진다. 작년 9월 말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 되고 재단의 역할에 생각이 더 깊어진다. 2022년 7월, 재외동포재단의 전문성과 세종학당재단의 전문성이 맞손을 잡고 그 결실을 거두었다. ‘Studykorean with KSI’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다. 재작년 업무협약 후 2년 만에 얻은 귀한 결실이었다.

한글학교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지 모른다. 코로나로 인해 한글학교가 줄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안다.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아동·청소년의 정체성과 유산으로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힘있게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세종학당과 협력하면서 우리 한인 아이들의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가 우리의 유산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충족할 수 있기 또한 바란다. 두 기관의 맞손이 동포 사회와 한글학교 교육자들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 되어 주기를 소망한다. 세종학당재단은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한국어교육 지원에 적극적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한글학교 교사들이 기다리는 그리운 강연장에 도착하니, 세차게 내리던 비가 그쳤다.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재외동포재단과 세종학당재단의 의미심장하고 전향적인 행보를 기대해 본다. **창**



06



10



22



- 02 권두언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맞손'
이혜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교수)
- 04 특집 프랑스·아시아 한인 동포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 보탬
- 06 기획 스페인 방문 윤석열 대통령,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
- 08 화제 필리핀 동포 노숙인 돕는 박일경 회장 "6년간 172명 구조"
- 10 한민족 공감 한인타운 골목에 '한글 벽화' 그린 아르헨티나 동포 2세대
'태극기 사랑' 남다른 뉴질랜드인 "우주의 심오한 뜻 담겨"
- 12 글로벌 코리아 한인 스타배우 샌드라 오, 캐나다 국민훈장 받는다
폴란드 한인 2세 "약탈 문화재 반환은 진정한 화해에 필수"
캐나다 정계서 한인 영향력 넓히는 '조·조 쌍두마차'
- 14 유공 동포 카자흐 고려인 원로 과학기술자 이반 박 박사, 국가 훈장 받아
- 15 주목! 차세대 한국계 최초 체스 그랜드마스터 "기회 되면 한국 대표로 뛰고 싶어"
- 16 지구촌 통신원 남아공서 '태극기 휘날리며' 6.25 참전 기념식원
"참전용사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극기 3년 만에 6·25 행사
- 18 동포소식 사할린 한인 국내 정착사 소개한 '귀국동포 연대기' 출간 외
- 20 문화유산 진주성과 축석루... 임진왜란 당시 아픈 역사 고스란히 간직
-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202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등급 획득 외
- 24 동포 캘린더 재일민단, 청소년 한민족 정체성 함양 위해 잼버리·문화탐방 외
- 25 기고문 다문화와 국내 체류 고려인
김승력 고려인센터 미르 대표
- 26 재단공지 한국어뉴스 방송 해외수신을 위한 YTN 셋톱박스 신청 접수합니다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 아시아 한인 동포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 보탤다

파리와 클라크서 유치 지원 결의대회와 총회 각각 개최



1



2



3

“프랑스 동포들이 단디 돕겠습니다”. 6월 21일(현지시간) 저녁 프랑스 파리의 한국대사관 건물과 시내 곳곳에 이런 내용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날 프랑스한인회(회장 송안식)는 부산시의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파리 한국대사관 정원에서 ‘재불 동포 엑스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 엑스포 유치 민간위원장인 최태원(SK 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국 대표단과 유대종 주프랑스 한국대사, 프랑스지역별 한인회장 등 프랑스 전역에서 온 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다.

프랑스한인회는 부산시의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국과의 첫 대면 경쟁 참여를 위해 정부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에서 6월 20~21일 이틀간 열리는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총출동한 것을 계기로 이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대표단도 이날 오전 파리에서 진행된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한국대사관으로 모두 이동해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정부 대표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PT 맞춰 행사 열어

결의대회는 한 총리의 환영사와 박 시장 및 최 민간위원장의 축사, 박정국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의 유치 현황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프랑스 한인사회가 엑스포 유치 지원을 약속하는 릴레이 응원 영상 상영, 프랑스 한인회장단의 다짐, 풍물놀이 공연, 유치 염원 박 터트리기 등의 행사도 이어졌다.

한 총리는 환영사에서 “‘단디 돕겠다’는 (현수막) 구절을 보니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90% 해결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2030년 부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변화를 해 왔고, 또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를 돕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프랑스 동포들이 음양으로 도와 오늘 발표를 잘 마쳤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 시장은 축사에서 “투표권을 가진 170여 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만큼 동포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가 형성되어 있는데 2030부산월드엑스포가 개최되면 대한민국이



4

여러 개의 발전 축을 갖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동포 여러분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실질적인 지지 자원을 모아 주면 2030월드엑스포를 부산에 반드시 유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투리 ‘단디’가 지금은 표준어처럼 됐는데 이 말을 쓰면 반드시 이뤄질 것처럼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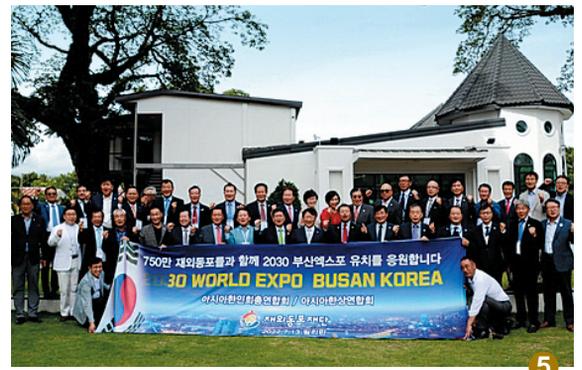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프랑스 동포들이 2030월드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파리에서 뚝뚝 뭉쳤다”며 “세계 각국에 있는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한글학교, 입양 동포단체 등 다양한 한인 단체들도 연대해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한인회·한상총연합회(아총연·회장 윤희도)도 7월 13일 필리핀 클라크의 호텔 서울에서 총회를 열고 “75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단체는 아시아 지역 22개 나라에서 활동하는 한인회·한상의 연합체다.

김교식 아총연 사무총장은 “총회에 참석한 회장단, 한인회장, 내외빈 등 100여 명은 재외동포들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유치 성공할 경우 61조 원 경제효과, 50만 명 일자리 창출

월드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전으로 불린다. BIE가 승인한 엑스포는 월드(등록) 엑스포(World Expo)와 인터내셔널(인정) 엑스포(International Expo) 등 2종류인데, 2012년 전남 여수에서 열린 엑스포는



5

인정 엑스포였다. 인정 엑스포보다 규모가 큰 등록 엑스포는 5년마다 한 번씩 6개월간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 43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조 원 등 총 61조 원의 경제 효과와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엑스포 유치 과정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 주한 미군 55보급창의 시 외곽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맞물려 있어 지역 발전도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접근성이 뛰어난 국제공항을 갖추는 것은 5천만 명 이상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월드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BIE는 2023년 11월 총회를 열고 170개 회원국의 투표로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30 월드엑스포는 한국(부산) 외에 중국(정저우), 이탈리아(로마), 스페인(바르셀로나), 프랑스(파리) 등도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장\]](#)

- 6월 21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재발 동포 엑스포 결의대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민간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한국 대표단과 유대중 주프랑스 한국대사, 프랑스 지역별 한인회장 등이 참석해 유치 염원 박을 터뜨리고 있다.(부산시 제공)
- 프랑스한인회와 프랑스 지역별 한인회 소속 동포들이 파리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재발동포 엑스포 결의대회'에서 2030월드엑스포의 부산 유치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부산시 제공)
- 파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재발동포 엑스포 결의대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단상 중앙)이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지원 의지를 선언한 프랑스 한인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부산시 제공)
- '재발 동포 엑스포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오른쪽)가 이장석 프랑스한글학교 협의회장(왼쪽), 유대중 주프랑스 한국대사(가운데)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아시아한인회·한상총연합회 회장단과 임원들이 7월 13일 필리핀 클라크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결의를 하는 장면

스페인 방문 윤석열 대통령,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

대통령의 스페인 동포 간담회는 15년만... “여러분과 새 대한민국 구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북**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한인 동포들과 만나 “동포 여러분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늦은 저녁 마드리드 시내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스페인 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동포 여러분의 어려움을 살피고 시대에 맞게 법령과 제도도 정비해 나가겠다”며 “현지에서 손쉽게 체감 가능한 디지털 중심의 교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후손들이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세대 동포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스페인 동포 사회의 지난 시간을 되짚기도 했다. “스페인 동포 사회는 도전 정신으로 출발했다”며 “태권도 사범, 병아리 감별사로 이 땅에서 기반을 닦았고 이역만리에서 원앙어업에 종사하며 카나리아 제도로 진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선배들의 도전 정신은 후배들의 귀감이 됐으며 동포 사회의 진취적인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도전 정신 위에서 스페인 교민 사회는 어려운 일이 닦혔을 때 더욱 빛났다. 이웃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끈끈한 동포애로 서로 돕고 나누는 모습 또한 고국에 큰 울림이 됐다”며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재외동포청 설립과 복수국적 취득 연령 낮추는 것은 대선 공약”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낮춰주고 취득 신청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한 참석 동포의 요청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낮추는 것은 대선 공약”이라면서 “복수국적 취득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줄은 자세히 몰랐다. 알아보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서는 1999년 창단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한국 가곡을 불러 눈길을 끌었다. 스페인인 단원들로 이뤄진 외국인 합창단이지만, 정확한





3



4



5

한국어 발음으로 우리 가곡을 합창했다. 특히 ‘보리밭’과 ‘밀양아리랑’에 이어 ‘우리의 소원’을 노래하자, 임재식 합창단장이 눈물을 흘렸고, 이를 바라보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 대통령이 스페인 동포 간담회를 연 것은 15년 만이다. 마드리드뿐 아니라 바르셀로나와 카나리아 제도 라스팔마스까지 스페인 각지의 한인회장 등 동포 120여명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위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는 현지 한국문화원과 한인 식료품점 방문

간담회에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배석했다. 김 여사는 올림머리에 검은색 재킷, 새틴 재질의 짙은 초록색 한복 스타일 치마 차림으로 등장했다. 김 여사는 앞서 6월 28일에는 개원한 지 11년 된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현지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처음 방문해 한복을 주제로 한 의상 전시 공간과 한글학당 등을 둘러봤다. 김 여사는 파블로 피카소, 안토니오 가우디 같은 거장을 배출한 스페인에서 한국 문화가 주목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문화원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애국자”라고 격려했다.

그는 스페인 방문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마드리드 마라비야스 시장 내 한국 식료품점을 찾기도 했다. 33년째 마드리드에 거주해온 식료품점 사장인 한인 부부와 만난 김 여사는 “부모님과 같은 1세대 동포들의 노력이 한국과 스페인의 끈끈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 첫 해외 방문 겸 다자외교 데뷔전서 외교 일정 16건 소화

한편 윤 대통령은 3박 5일 일정의 이번 스페인 방문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외교 데뷔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비롯해 호주·네덜란드·프랑스·폴란드·덴마크·캐나다·체코·영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공조 복원을 논의했다.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됐지만 기시다 총리와의 여러 차례 대면을 통해 양국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연쇄적인 양자 회담에서는 국가별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부각했다. [\[장\]](#)

1. 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28일(이하 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28일 마드리드 스페인 주재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5.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필리핀 동포 노숙인 돕는 박일경 회장 “6년간 172명 구조”

‘동포 사랑 쉼터’ 운영하며 한인 안전하게 ‘재외한인구조단’에 인계

필리핀 동포 최 모(68) 씨는 올해 5월 22일 오매 불망 그리던 고국 땅을 밟았다. 그는 12년 전 필리핀에 진출해 건설업을 하면서 한때 잘나가기도 했지만, 부도가 난후 노숙자 신세가 됐다. 불법체류자인데다 건강도 악화하고, 한국 가족과도 인연이 끊어져 오갈 데가 없었던 최씨는 현지에서 박일경 SY인더스트리얼 회장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고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박 회장은 최 씨처럼 사업에 실패하거나 카지노와 마약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동포 노숙인들을 구조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동포 사랑 쉼터’를 운영하면서 172명을 고국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그는 “필리핀에는 사업에 실패해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창피하고 부끄러워 노숙자로 사는 동포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이들이 고국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필리핀의 콘래드 마닐라 호텔에서 시행한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동포 노숙자 몇 명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다가 2016년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인 새생명교회와 한국의 ‘사랑발재단’을 연결해 본격적으로 ‘동포 사랑 쉼터’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가 동포 노숙인 구조에 나선 것은 1997년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부도가 나 필리핀 거리를 떠도는 한 70대 동포를 이혁 당시 필리핀 대사와 함께 고국으로 보내면서부터다. 노숙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여서 귀국을 하고 싶어도 필리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거액의 벌과금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떠돈다. 게다가 고국에 보내주겠다고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의 꾀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놓인다.

박 회장은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한때 브로커가

30명 가까이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이혁 전 대사와 재외한인구조단의 지원 덕분에 필리핀 동포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필리핀 이민청장에게 노숙인 송환을 위해 편지를 썼고, 벌과금 없이 추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한국에 도착해도 오갈 데가 없는 노숙인들이 안전하게 묵을 수 있도록 강화도에 있는 ‘사랑발재단’과 연계했다. 이 재단의 권태일 목사는 사단법인인 ‘재외한인구조단’의 운영을 맡고 있다

“코로나19로 노숙인 늘어 안타까워… 앞으로도 지속해서 도울 것”

“한 사람을 고국에 보내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권태일 목사를 찾아가 부탁을 했죠. 필리핀 동포 노숙인을 보낼 테니 책임져 달라고요. 사랑발재단이 50%를 지원하면 제가 나머지를 맡겠다고 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박 회장은 오갈 데 없는 동포를 ‘동포 사랑 쉼터’로 불러들여 3개월 동안 숙식을 제공하고, 대사관에 서류를 보내 불법체류 면제 신청을 한 다음 항공권을 사 고국으로 보내는 일을 6년째 펼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숙자들도 많이 늘었다”면서 “이들을 모두 ‘동포 사랑 쉼터’에 입소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20년 4월부터는 별도의 임시 숙소를 마련해 숙식



1



2

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이 고향인 박 회장은 33세 때인 1984년 두산산업 필리핀 지사장으로 왔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정착해 제3국 무역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SY 인터스트리얼'을 창업했다. 그는 감자, 옥수수 등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으로, 호주에서 필리핀으로 수입해 유통하느라 많은 시간을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도 동포 노숙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필리핀한인연합회장과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마닐라 지회 5대 회장을 지낸 그는 한인들의 화합과 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있어 동포사회에서 '덕망 있는 사업가', '보이지 않는 손' 등으로 불린다.



3

한편 1991년 10월 5일 월드옥타 지회로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마닐라 지회는 당초 지난해 30주년 행사를 기획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년을 연기해 31년째인 올해 5월 26~28일 사흘간 콘래드 마닐라 호텔에서 '월드옥타 아시아 지역 지회장 및 회장단 간담회'란 이름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1. 필리핀에서 '동포 사랑 쉼터'를 운영하는 박일경 회장(앞줄 4번째)과 자원봉사자들
2. 박일경 필리핀 SY인터스트리얼 회장
3. 지난 5월 월드옥타 필리핀 마닐라 지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인사들
4.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포 사랑 쉼터'



4

한인타운 골목에 ‘한글 벽화’ 그린 아르헨티나 동포 2세대들

현지 토요일한국학교 주관·지자체 후원... “산뜻한 골목 변신”



부에노스아이레스 먹자골목에 벽화를 그린 뒤 참가자들이 공연을 여는 장면

동포 2세대들이 그린 한국 관련 벽화로 산뜻해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 식당 골목

아르헨티나 동포 2세대들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인식당 밀집 거리를 한글이 들어간 벽화로 장식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글학교의 정덕주 교사는 “6~17살 동포 2세 학생 50여 명과 지원 교사 24명, 학부모들은 최근 한인 식당이 몰려있는 먹자골목인 루페르토 고도이(Ruperto Godoy) 길의 벽에 태극기와 무지개 등을 그려 벽화를 완성했다”고 6월 29일 전했다. 정 교사는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코리아넷’ 해외통신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의 벽화 그리기 행사는 아르헨티나 토요일한국학교(교장 이영미)가 주관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다민족 문화국과 시 제7구청 후원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에게 한국이 아닌 아르헨티나에서도 소중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과 실천을 다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자리였다고 정 교사는 설명했다.

학생들이 벽화를 수놓은 고도이길은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상점이 밀집한 아베자네다 지역에 있다. 한식, 중식, 일식, 빵집 등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10여 개도 모여 있다. 최근에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음식을 접해 보려는 현지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학생들은 이 골목의 벽에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한글과 태극기, 커다란 무지개, 알록달록한 색의 꽃, 노란색 별, 하늘색 하트 등을 채워 넣었다. 각자 맘에 드는 물감을 골라 손도장을 찍고, 자신의 이름 혹은 이니셜을 벽화에 새기기도 했다.

행사에는 백창기 한인회장, 김진광 한국학교 이사장, 메르세데스 바르바라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다민족 문화국 국장 등이 참석해 격려했다.

11살과 8살, 6살 아이를 둔 학부모 조 카탈리나 씨는 “아이들이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공동작업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벽화 그리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영미 교장은 “벽화를 통해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행복의 선물을 받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마을 주민 이스텔라 씨는 “예전에는 허름한 벽이었는데 벽화를 그리면서 아주 산뜻해졌다”며 “골목이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 했다.

‘태극기 사랑’ 남다른 뉴질랜드인 “우주의 심오한 뜻 담겨”

한국전 참전 용사 아들 에드ريان 씨, 20년 전부터 보유

한국인보다 태극기를 더 사랑하는 뉴질랜드인이 있다. 박춘태 한글세계화운동 뉴질랜드 본부장이 최근 코리안넷(www.korean.net) ‘해외통신원 소식’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주인공은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캐시미어 지역에 거주하는 에드ريان 씨다.

20년 전부터 태극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정말 사랑하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자신의 집을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에게 임대하는 그는 단순히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집 앞 정원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국가별 국경일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국기를 내건다.

설날과 추석, 광복절, 한글날 등 한국 명절이나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국인들이 주관해 파티를 열 때도 태극기를 내건다. 보유한 태극기가 작다는 것을 알고 2012년 대형 태극기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에드ريان 씨는 왜 ‘아이 러브 태극기’를 외치게 된 걸까. 그는 1970년 한 영화에서 태극기를 처음 접했다. 당시 태극 문양의 붉은색과 파란색이 단순히 북한과 남한을 상징하는 줄만 알았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1950년 한국전쟁 때 6천여 명의 군인을 참전시켰는데, 에드ريان 씨의 아버지도 참전했다. 그렇다 보니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남북한과 음양으로 나뉜 태극 부분이 동일하다고 여긴 것이다.

에드ريان 씨는 미국 국기와 태극기를 비교하면서 “미국 국기에 있는 50개의 별은 미국이 50개 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태극기는 더 심오한 뜻이 있다”며 “태극기의 세련된 디자인과 의미의 다양성에 매료됐다”고 말했다.

“태극이 담은 우주의 원리와 사방 모서리에 그려진 건·곤·이·감의 사괘(四卦)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에 공감했어요. 또 흰 바탕이 상징하는 백인민족이 궁극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도 반했습니다.”

그가 태극기 사랑에 빠진 또 다른 이유는 2002년 열린 한일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에드ريان 씨



2021년 11월 27일 크라이스트처치 ‘한국의 날’ 행사에 걸린 태극기와 청사초롱

드컵 경기에서 태극기의 응원 물결을 목격하고서다. 그는 “당시 뉴질랜드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태극기의 물결은 무척 감동적이었다”며 “태극기가 한국인들을 대동단결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크게 고취했다”고 밝혔다. **장**



한인 스타배우 샌드라 오, 캐나다 국민훈장 받는다 “영화계 빛낸 공로”... 한인으로는 2번째 영예

한인 스타 배우인 샌드라 오(한국이름 미주)가 캐나다 국민훈장(Order of Canada)을 받는다. 캐나다 총독 사이트(The Governor General of Canada)와 더 캐네디언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리 사이먼 연방 총독은 최근 문화예술, 학계, 정계, 스포츠계 등의 캐나다 국민훈장 수훈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샌드라 오는 문화예술 부문 수훈자로 선정됐다. 캐나다 국민훈장은 등급 순서에 따라 컴패니언(Companion), 오피서(Officer), 멤버(Member)로 구분된다. 샌드라 오는 오피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캐나다와 미국 국적인 그는 영화계를 빛낸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수훈자로 선정됐다. 한인 수상자는 정영섭 몬트리올대 유전공학과 교수에 이어 그가 두 번째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경제학자인 아버지 오준수 씨와 생화학자인 어머니 전영남 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학교에서 연극과 뮤지컬에 출연하며 배우의 꿈을 키웠다. 몬트리올 영화학교를 졸업한 후 1994년 영화 ‘이중 행복’으로 첫 주연을 맡았다.

1997년 TV 프로그램 ‘에블린 라우의 일기’에 1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발탁돼 유명해졌다. 1994년과 1999년에는 ‘캐나다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지니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2005년 미국 TV 드라마 ‘그레이 애나토미’에서 한국계 미국인 의사 역을 맡아 스타로 떠올랐다. 드라마 ‘킬링 이브’의 이브 폴라스트리 역으로 2018년 아시아인 최초로 골든 글로브 TV 부문 드라마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미국의 ‘피플’지 선정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던 그는 올해 개봉한 할리우드 공포영화 ‘엄마’(UMMA-Mother)의 주연을 맡았다. 캐나다 국민훈장은 1967년 레스터 피어슨 당시 총리의 제언으로 캐나다 자치령 공포 100주년을 맞아 제정됐다. 휘장은 연방 총독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신해 수도 오타와에서 전달한다.

폴란드 한인 2세 “약탈 문화재 반환은 진정한 화해에 필수” 남지은 연구원, ‘문화재 반환 상징적 외교’ 영문으로 출간

“식민주의 시대와 전시 중에 약탈해 간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은 과거의 파괴 행위에 대한 화해와 치유 그리고 양국 간 미래 협력관계 구축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최근 영문으로 ‘문화재 반환 상징적 외교’란 제목의 책을 출간한 남지은(28)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문화재 반환은 침탈한 국가와 빼앗겼던 국가 사이에 아픈 과거를 잊고 평등한 미래 관계를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책을 썼다”고 밝혔다.

남종석 폴란드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의 딸인 그는 현지에서 성장한 한인 2세대. 청소년기에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던 그는 모국을 직접 체험하려고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에 지원했다.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 연세대 대학원에서 국제협력학을 공부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뿌리를 제대로 알기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뜻밖에도 외국에 빼앗긴 문화재가 많다는 것에 놀랐다”며 “이를 돌려받는 일이 왜 당연한지 그리고 외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알려려고 했다”고 책 출간의 의미를 소개했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간한 이 책은 문화재 약탈의 역사, 문화재 반환이 외교에 미친 사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한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국제협력,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기업·재외동포 등이 문화재 반환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남 연구원은 한국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강탈한 국가는 일본(44%), 미국(25%), 중국(6%), 영국(4%), 프랑스(3%) 순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구 등 열강의 문화재 약탈과 반환이 많으므로 이를 알리기 위해 우선 영문으로 책을 출간해 아마존 킨들 등 외국의 주요 서적 사이트에 소개했다. 하반기에는 한국어로도 출판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계서 한인 영향력 넓히는 ‘조·조 쌍두마차’ 조성준·조성훈 의원, 온타리오주 장관·부장관에 유임

캐나다 정계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며 한인 사회의 영향력을 넓히는 두 한인 정치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캐나다 한인사회에 따르면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는 최근 조성준(영어명 레이먼드·86), 조성훈(스탠·44) 의원을 각각 노인복지 장관과 교통부 장관에 재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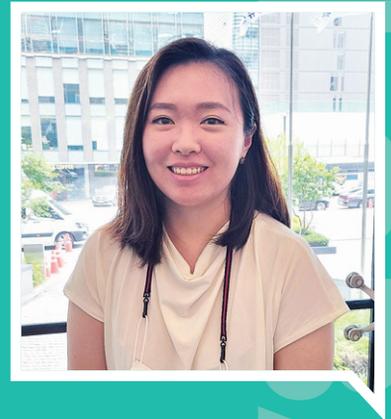
온타리오주는 수도 오타와와 토론토를 포함하는 인구 1천450만 명의 캐나다 최대 지방자치단체다. 조 장관과 조 부장관은 2018년 포드 총리 1기 정부부터 호흡을 맞춰왔다. 온타리오주 한인사회의 ‘조·조 쌍두마차’로 불리는 이들은 6월 2일(현지시간) 총선거에서 각각 스카보로 노스 선거구, 노스욕 윌로우데일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조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포드 총리와 30명의 내각 멤버는 6월 24일 오전 주 의사당 앞에서 엘리자베스 도우데스웰 주 총독에게 취임을 선서한 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총선거에서 주의원 3선, 토론토 시의원 8선 등 ‘직선 11선’의 기록을 세웠다. ‘캐나다 한인 정치인 1호’, ‘최고령’, ‘최다선’의 기록들로 북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이정표를 남겼다.

1991년 토론토 시의원에 당선하며 정계에 입문한 그는 31년 동안 스카보로 노스 지역을 대표한 정치인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한 뒤 1967년 캐나다에 이민해 접시닻이, 청소부, 광부 등으로 일하다 토론토대 대학원에 입학해 사회복지학과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 조 부장관은 부모가 어렵게 가게를 꾸려가던 시절을 기억하며 누구보다도 이민자들, 특히 서민의 애환을 보듬어 주고자 애썼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평화 마라톤’과 ‘한가위 한인 대축제’ 등 한인사회의 굵직굵직한 행사에서 사회자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



카자흐 고려인 원로 과학기술자 이반 박 박사, 국가 훈장 받아

이공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 대통령으로부터 '파라삿' 훈장 수훈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원로 과학기술자 이반 박(92) 박사가 이 나라 이공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훈장을 받았다. 재외동포재단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박 박사는 6월 1일(현지시간)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수여하는 '파라삿'(Parasat, 귀족이라는 뜻) 국가 훈장을 받았다. 파라삿 훈장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3년 대통령령에 따라 도입한 국가 훈장으로, 과학·정치·예술·사회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다.



이반 박 박사가 받은 '파라삿' 훈장

이반 박 박사

1930년 옛 소련 당시 연해주에서 이북 출신 한인 사이에서 태어난 박 박사는 7세이던 1937년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부모와 함께 카자흐스탄 아티라우로 강제이주 됐다. 척박한 환경에도 그가 카자흐스탄에서 쌓은 과학기술자로서의 이력과 성과는 화려하다. 1954년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의 물리학 및 수학 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1960년과 1980년 모스크바 대학에서 각각 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옛 소련 국립과학원 연구원을 지냈다. 또 모교인 카자흐 알파라비대의 석·박사 학위 수여 위원회 위원장, 자연과학아카데미 회원 등을 맡기도 했다.

박 박사는 기계대수 분야 권위자로 컴퓨터 연산, 데이터 처리,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군사용, 우주용 기계 개발에 앞서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20여 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170여 편의 논문을 썼고 7권의 단행본 서적을 출간했다.

대외 공적 활동도 활발...

“한국, CIS 고려인 기초과학 잘 활용해야”

그는 과학기술자로서 연구·개발 외에 대외활동도 활발히 펼쳤

다. 1991년 현지에서 고려인과학기술자협회를 창립해 2014년까지 24년 동안 회장을 맡았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다. 이 협회 소속 다양한 분야 고려인 과학기술자들은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좌우할 주역들로 꼽히며, 이들의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995년 카자흐스탄 공훈 과학기술자가 된 그는 2004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지금은 현지 고려인협회 원로회 회장도 맡고 있다.

박 박사는 200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독립국가연합(CIS)과 러시아는 기초과학이 발달해 있다”면서 “이곳 기초과학과 한국의 과학기술이 접목되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고려인들이 있음을 한국이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평소에도 자주 “나는 1세대 고려인으로 미래 세대 고려인들을 위한 교육을 늘 강조하며,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

한국계 최초 체스 그랜드마스터 “기회 되면 한국 대표로 뛰고 싶어”

크리스토퍼 우진 유, 지난해 만 14세에 그랜드마스터 자격 획득

지난 5월 사단법인 대한체스연맹(FIDE)이 주최한 ‘2022 체스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수단’ 결단식에서는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체스 그랜드마스터(GM)이자 한국계 미국인 선수인 크리스토퍼 우진 유(16) 군과 한국 선수 30명이 다면기를 벌인 것. 다면기는 체스, 바둑, 장기 등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실력이 낮은 여러 사람과 대국하는 것을 말한다.

그랜드마스터는 세계체스연맹 등이 주관하는 대회에서 상위 1% 내에 속하는 성적을 거둔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칭호다. 주요 대회에 출전해 2천500점 이상의 실적 점수를 획득하고, 국제대회에서 3개의 자격 기준을 얻어야 한다.

대한체스연맹에 따르면 유 군은 한국계 선수로는 최초로 이 타이틀을 획득했다. 부모와 함께 약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그는 최근 화상 인터뷰에서 “미주 지역이나 유럽 등에 비해 한국에서 체스에 대한 관심은 뜨겁지 않아 조금 아쉽다”면서도 “이번 이벤트 경기가 한국의 체스 인기를 높이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그가 처음 체스를 접하게 된 데는 가족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인 박정희 미국 버클리대 한국어학과 교수는 유 군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13년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체스를 배워볼 것을 제안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재 유 군의 경기 매니저를 맡는 아버지 유영규 씨가 오랫동안 체스 팬이었던 것도 한몫했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취미 삼아 배워볼 것을 권유했다”며 “생각 이상으로 아들이 큰 흥미를 느꼈고,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한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재능이 보인다 싶었다”고 했다. 그는 “고민 끝에 학업은 ‘홈스쿨링’으로 대체하고 지역 토너먼트 대회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프로 선수의 경우 보통 4~5살에 준비하는 데, 우리는 조금 늦게 결정한 거라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한국계 선수로는 최초로 체스 그랜드마스터(GM) 타이틀을 획득한 크리스토퍼 우진 유

최근 한국 선수단과 다면기… “한국 체스 인기 높이는 데 일조했으면”

다행히 유 군은 2017년 16살 이하 북미 청소년 대회와 2018년 지역 대회 등에서 잇달아 우승하면서 빠르게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만 14세 11개월의 나이에 그랜드마스터 자격을 얻었다. 최근 엘살바도르에서 열린 아메리카대륙 체스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며 ‘2023 세계체스연맹 월드컵’ 출전 자격도 따냈다.

여러 대회에 나선 유 군이지만, 최근 한국에서 치른 경기는 유독 특별했다고 강조했다. 유 군은 “30명과 동시에 겨룬 다면기는 흔치 않았던 기회”라며 “다면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의 고수이자 한국대표팀 선수인 권세현과 맞붙은 경기도 흥미로웠다”고 했다.

그는 “예술과 기하학의 흥미로운 면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둘 수 있는 수가 무한한 것이 체스의 매력”이라며 “무엇보다 결국에는 내가 많이 이겨서 체스가 재미있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내년에 열린 월드컵에서 좋은 결실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중에 기회가 닿는다면 한국 대표선수로 뛰는 날도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남아공서 '태극기 휘날리며' 6.25 참전 기념식

추운 날씨 속 참전용사 희생 되새겨

6월 22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최남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6·25 한국전쟁 참전 기념식이 열렸다. 수도 프리토리아 인근 베이힐스에 위치한 남아공 공군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미국, 터키, 태국 등 다른 참전국 무관과 남아공 한국전참전용사협회,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한인회 관계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외곽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경호를 서기도 했다.

남반구인 남아공은 현재 겨울이어서 바람까지 쐬던 이날은 꽤 추웠지만, 기념식은 군목의 기도와 트럼펫 연주 속에 엄숙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사자들의 이름 앞에 헌화하고 이들의 희생을 기렸다.

남아공은 제2전투비행대대 소속 826명이 6·25에 참전했고 이 가운데 36명이 전사 또는 사고로 숨졌다. 사망자 대부분이 공군 조종사라서 당시 남아공 공군으로선 전력에 막대한 손실을 봤다.

참석자들은 기념식 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다는 인근 스타트코프 공군기지(1921년 설립) 장교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더크 러우 남아공 한국전참전용사협회장은 전사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고 "한국인들의 내일을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전쟁 후 72년이 되도록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찬장에서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의 이병철 국방무관은 생존 참전용사 5명 중 유일



1



2

하게 참석한 피트 피세르(91) 옹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다른 참전용사 후손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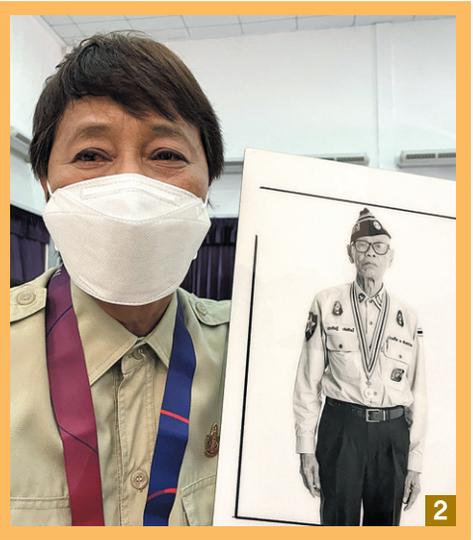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팬데믹 후 처음으로 남아공 공군을 대표해 N.E. 네시 밤베 주장을 비롯한 여러 현역 군인들이 참석했다. **장**

김성진 연합뉴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특파원

- 1. 6월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도 프리토리아 교외 남아공 공군기념관 앞에서 6·25 한국전쟁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다.
- 2. 더크 러우 남아공 한국전참전용사협회장(왼쪽)과 최봉규 주남아공 한국대사관 공사가 남아공 공군기념관 내 한국전 전사자 추념 조형물 앞에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참전용사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태국서 3년 만에 6·25 행사

코로나19로 2년간 안 열려



태국에서 6·25 기념행사가 3년 만에 열렸다. 주태국 한국대사관과 주태국 한국문화원은 6월 24일(현지시간) 방콕 남부 촌부리의 제21연대에서 생존 참전용사 15명과 참전 22개국 외교단 그리고 태국 정부 및 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자리를 가졌다. 21연대는 한국 전쟁 참전부대다 매년 개최되던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년간 열리지 않았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한국전 참전비에 현화한 뒤 참전용사 후손 13명에게 평화 메달을 전달했다.

문 대사는 추념사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 참전을 모태로 창설된 21연대가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한국·태국 양국의 우호 증진에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사 등 대사관 관계자들은 직접 끓인 삼계탕을 참전용사에게 대접하면서 감사의 마음도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한국과 태국 전통무용 공연 외에 태권도 시범도 진행됐다. 참전용사였던 아버지 뿌라딧 릿신 씨의 사진을 들고 온 딸 파니탄 릿신(61) 씨는 무대 앞에서 상영되던 참전용사 영상을 보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다.

파니탄 씨는 기자에게 “매년 이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아버지가 약 1년 전 94세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올해는 같이 오지 못했다”며 “화면에서 아버지 모습을 보니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선친은 한국 전쟁 동안 두 차례 파병돼 1년여간 근무했고, 태국군의 용맹함을 알린 유명한 중부전선 ‘폭잡 힐 전투’에도 참여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고 6천326명의 육·해·공군을 파병한 국가다. 주태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120여 명의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다. **창**

김남권 연합뉴스 태국 방콕 특파원

1. 문승현 주태국 한국대사(앞줄 왼쪽 6번째)와 6·25 참전국 외교사절단이 6월 24일(현지시간) 방콕 남부 촌부리의 참전용사 비에 현화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6·25 기념식장에서 1년 전 승진 참전용사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는 파니탄 릿신(61)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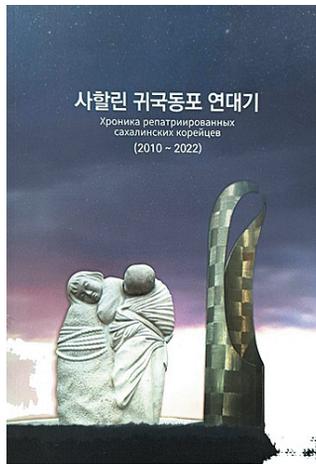
사할린 한인 국내 정착사 소개한 '귀국동포 연대기' 출간

4천500명 귀국해 2천800명 생존... 권익 운동 등 기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회장 권경석)가 모국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의 정착사를 소개하는 '사할린 귀국동포 연대기'를 최근 출간했다. 사할린 한인은 일제강점기 5만여 명이 끌려가 남사할린의 탄광과 군수공장 등에서 일했고, 일제 패망 뒤 남겨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1994년 한일 정부가 사할린 한인의 영주 귀국 사업에 합의하면서 지금까지 4천여 명의 동포 1세대와 2세 등이 모국의 품에 안겼다. 이들은 서울, 인천, 안산, 김포, 파주, 부산 등 19개 시·군에 정착했고, 현재 2천800여 명이 생존해 있다.

권경석 회장은 "지역마다 있는 25개 사할린 한인 단체들이 뭉쳐서 모국 정착을 돕고 권익도 신장하기 위해



2010년 협회를 결성했다"며 "12년간 협회를 중심으로 펼쳐온 다양한 활동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모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대부분 고령인 것을 고려해 연합회는 건강관리 안내, 지역사회 커뮤니티 가입, 시니어 봉사 등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사할린동포법의 제정 운동, 강제 징용됐던 1세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지급 임금 반환 요청 등에도 앞장서 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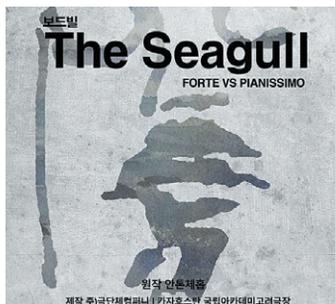
360여 쪽에 500여 장의 사진이 수록된 이 책에는 연합회와 각 지역 사할린단체 소개, 3개월마다 열렸던 월례회, 국회 시위·헌법소원 등 권익 활동, 각종 기념일 위문 잔치와 사할린 한인사 등을 담았다.

한-카자흐 수교 30주년 기념... 안톤 체호프 희곡 '갈매기' 서울서 공연

강태식·김춘경 공동 연출... 6월 23일부터 나흘간 대학로 코튼홀서 열려

러시아의 세계적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작품 '갈매기'(The Seagull)가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초청 형식으로 서울에서 공연됐다. (주)극단체컴퍼니와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고려극장이 제작한 '갈매기'는 6월 23~26일 나흘간 서울 대학로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코튼홀에서 강태진·김춘경 공동 연출로 관객들을 맞았다.

출연진에는 콘스탄친 박(고소자 역), 빅토리아 김(니나 역), 나쥐에쥬다 김(아르카지나 역), 에드워드 박(도른 역), 게오르기 윤(쏘린 역), 나탈리아 리(마샤 역), 세르게이 김(메드베젠코 역), 알리셰르 마흐베로브(사무라예프 역) 등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고려극장 소속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서울에서 열린 '갈매기' 공연의 안내 포스터(주)극단체컴퍼니 제공

배우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 배우로는 윤석민, 진성웅이 야코프 역에 더블 캐스팅됐다.

'갈매기'는 체호프의 4대 장막극 중 첫 번째로 쓰인 희곡으로 넓은 호숫가와 평화로운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각 인물의 사랑과 배신, 파멸을 비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삶의 아이러니와 각 인물이 지닌 비루함을 통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예리하게 포착한 점이 인상적이다. 공동 연출을 맡은 강태식은 "고전 희곡의 대명사로 꼽히는 '갈매기'는 체호프의 기념비적인 작품들 속에서도 가히 백미"라면서 "이제

우리 공연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작품으로 모두에게 각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백악관 위원회, KAC 동영상 ‘혐오범죄 예방 캠페인’ 좋은 사례로 소개

미국 내 차세대 한인들의 권익 신장 단체인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지난해 로스앤젤레스(LA) 아시안 정의진흥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아시안 혐오 범죄와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제3자 개입 훈련’(Bystander Intervention Training to Stop Asian Hate and Xenophobic Harassment)의 한국어 훈련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KAC는 이에 따라 훈련에 사용될 강의 자료의 한국어 번역, 한국어 강사 섭외 및 매월 정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 시행 목적은 정기적 교육과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아시안 증오 범죄·사건에 대한 한인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대처요령, 신고 방법, 목격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관한 정



미국 내 아시안 혐오 범죄와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3자 개입 훈련 안내 포스터

보가 언어적, 기술적 장벽 없이 커뮤니티 전반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영어로만 진행되던 제3자 개입 훈련을 한국어로 월 1~2회 실시함으로써 언어장벽으로 훈련을 받지 못한 동포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KAC는 특히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만든 동영상상을 최근 한인 커뮤니티에 배포하고 온라인에 올렸다. 그러자

미 백악관 아시안 커뮤니티 담당 위원회(White House Initiative on Asian Americans, Native Hawaiians and Pacific Islanders, WHIAANHP)가 이 동영상을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에 혐오범죄 예방 캠페인의 좋은 사례로 소개했다고 동포재단은 전했다.

한인 수녀들 30년 헌신한 멕시코 학교에 한인사회 온정 쏟아져

무료 기숙학교 ‘찰코 소녀의 집’에 7천여만 원 상당 물품 후원

멕시코에서 한국인 수녀들이 30년간 운영해온 무료 기숙학교에 현지 한인사회로부터 온정의 손길이 쏟아졌다. 멕시코 한인회(회장 엄기웅) 등에 따르면 현지 한인회는 한국대사관과 함께 6월 8일(현지시간) 멕시코주(州)에 있는 ‘찰코 소녀의 집’을 찾아 115만 페소(한화 7천300만 원 상당)와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후원품은 학생들이 평소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들로 준비됐다. 원단과 속옷, 반바지, 재킷, 레깅스, 커피믹스에 더해 방역 마스크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등이 전달됐다.

소녀의 집은 한국인 수녀들이 약 30년간 운영해온 정규 중·고



한인 수녀들이 운영하는 ‘찰코 소녀의 집’에 후원 물품 전달하고 단체사진 찍는 관계자들

등학교다. 여학생 3천300명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있으며 수업료는 물론 기숙사비가 전액 무료다. 세 자녀 이상 저소득층 가정 출신 또는 무연고 여학생만 입학이 허용되는데 신입생 선발 시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후원품 전달 때 한국 가요를 부르고, 한국 부채춤과 멕시코 전통 무용 공연 등으로 방문당 일행을 환영했다.

개교 때부터 30년간 학교 운영에 헌신해 온 전 교장 정말지 수녀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후원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도움을 주니 매우 감사하다”고 반겼다.

진주성과 축석루 임진왜란 당시 아픈 역사 고스란히 간직

오랜 세월 경남 진주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아 온 진주성(晉州城·사적 제118호)은 서남쪽에서 동남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남강을 따라 높이 5~8m, 길이 1천760m의 성곽을 두르고 있는 작은 성이다. 현재 역사공원으로 꾸며진 진주성에서는 임진왜란 때 두 차례의 큰 전투가 있었다.

삼국시대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은 원래 토성(土城)이었다. 이후 고려 말 우왕 5년(1379)에 진주목사인 김종광이 잦은 왜구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석성(石城)으로 개축했다. 이어 조선 선조 24년(1591)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외성(外城)을 쌓았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그해 10월 진주성에서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1554~1592) 장군이 3천800여 명의 군사로 2만여 명의 왜적을 물리쳤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꼽히는 진주대첩은 왜군이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8개월 뒤인 1593년 6월 왜군 10만여 명이 다시 진주성으로 쳐들어왔다. 민·관·군 7만여 명이 왜구에 맞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지만 끝내 장렬하게 전사했고 진주성도 함락됐다. 왜군은 승전을 자축하기 위해 축석루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의기(義妓) 논개는 왜장을 꺼내고 남강에 몸을 던져 순국했다.

이런 아픈 역사를 품은 진주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지금까지 8회 연속 선정됐다. 성

내 축석루는 2012년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이 선정한 ‘한국 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곳 50선’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왜적과 맞섰던 치열한 역사의 현장

진주성의 정문인 공북문(拱北門)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가면 잘 꾸며진 잔디공원과 김시민 장군 동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공북문은 ‘북쪽에 있는 임금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공경의 뜻을 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임금이 계시는 북쪽을 향해 절을 하고 고유(告由)하던 자리로 전해진다.

2000년 1월 1일 제막된 김 장군 동상은 높이 7m로 진주성의 수호상이기도 하다. 동상 앞 비석에는 “1578년 무과에 급제, 훈련원·군기시 판관을 거쳐 1591년 진주 판관이 됐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목사가 병으로 죽자 그의 직을 대신해 민심을 다독이고 성과 못을 수축하는 한편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 체제를 갖춰 사천·고성·진해·지례·금산 등지에서 승전고를 울리면서 목사로 승진됐다. 같은 해 10월 5일 침공한 적의 2만 대군을 불과 3천800여 병력으로 6일간의 공방전 끝에 크게 무찔러 이기니 곧 진주대첩이다. 그러나 이마에 적탄을 맞았다. 이어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됐으나 병상에서 나라일을 근심하며 눈물짓다가 39세를 일기로 이곳 진주성에서 순절하였다”라고 적혀있다.





3

동상을 둘러본 뒤 성곽을 따라 왼쪽으로 올라가면 김 장군의 전공비(경남 유형문화재 제 1호)와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한 김천일, 최경희, 황진 등의 충정과 전공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세워진 축석정충단비(矗石旌忠檀碑·경남 유형문화재 제2호)가 보인다. 옆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7만 민·관·군의 넋을 기리는 임진대첩계사순의단(壬辰大捷癸巳殉義壇)이 세워져 있다.

임진대첩계사순의단에서 남강 쪽으로 내려가면 '영남 제일의 명승'으로 꼽히는 축석루(矗石樓·경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가 서 있다. 고려 고종 28년(1241)에 창건된 이래 여러 차례 중건과 중수를 거듭한 축석루는 '강 가운데 우뚝 솟아있다'는 의미로 '축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전시에는 장졸을 지휘하던 지휘소로 쓰였고 평시에는 시인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던 곳이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의 누대로 과거를 치르던 고사장으로도 사용됐다. 임진왜란 때 불탄 축석루는 1948년 국보 제276호로 지정됐으나 6.25 전쟁 때도 불타는 불운을 겪은 뒤 1960년에 복원됐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축석루에는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청천 신유한, 매천 황현 등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시판(詩板)이 걸려 있다.

불빛과 물이 어우러진 황홀한 야경

축석루에서 암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가면 논개가 적장을 꺼안고 남강에 뛰어든 의암(義巖·경남 기념물 제235호)이란 바위가 반긴다.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남강 수면 위에 솟아있는 바위 서쪽 면에는 인조 7년(1629) 정대룡이 한자로 쓴 '義巖'이 새겨져 있다. 논개가 낙화(落花)한 곳이라서 그런지 축석루를 떠받치는 버랑만큼이나 크고 당당하게 느껴진다.

축석루 옆에는 의기 논개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 의기사(義妓祠·경남 문화재자료 제7호)가 있다. 진주성의 또 다른 매력은 야경이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진주성 건너편 중앙광장에 서면 진주성벽과 축석루는 화사한 불빛을 받아 황홀한 경치를 보여준다. 바람에 일렁이는 남강 물결 너머 축석루의 처마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조명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성안으로 들어가 은은한 불빛을 따라 느릿느릿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왜적과 맞섰던 치열한 역사의 현장, 천지사방이 적요하고 남강의 물결은 더없이 깊게 느껴진다. 



4



5

1. 진주성 정문인 공북문
2. 진주성 축석루의 야경
3. 진주성과 남강 일대 모습
4. 진주성 내 김시민 장군 동상
5. 진주성 축석루 옆 의기사(義妓祠)내에 전시된 논개 영정

재외동포재단, 202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등급 획득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가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정하는 ‘20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5년 만에 ‘우수’ 평가를 받았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점검한 평가 결과를 사업별·기관별로 예산 편성에 반영해 성과중심의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재외동포재단은 코로나19 악조건에서도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여도,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에 대해서도 가점을 획득하여 외교부 소관의 재정사업 34개 중 가장 높은 102.4점의 점수를 기록했다.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은 “금번 성과는 전 임·직원이 사업 성과 관리를 충실히 해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732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주본부 전경

재외동포재단, 청년 60명에 ‘한상 인턴십’ 통한 해외 취업 지원



동포재단, 청년 해외 취업 위한 ‘한상 인턴십’ 제공

재외동포재단은 국내 청년 60여 명에게 ‘한상(韓商) 인턴십’을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상에게는 모국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소개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해외에서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으로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동포 기업 가운데 정규직 채용을 염두에 둔 기업을 선정했다. 인턴 모집 분야는 무역, 행정, 마케팅, 디자인, IT 등이며, 채용되면 6개월 간 동포 기업에 파견된다.

기업은 사전 공지를 통해 응모한 청년을 대상으로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서류 심사 후 7월 12일부터 21일 사이에 화상 면접과 국내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선발된 인턴들은 8월 2~5일 국내 사전교육을 받고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한다.

재단은 해외 장기체류 보험과 매월 110만 원씩 6개월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우, 여성 가장, 다문화 가족 자녀 등 취업 애로 청년층은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인턴 종료 후 현지 취업 확정 시 왕복 항공료도 제공한다. 기업은 인턴에게 매월 최소 600달러 이상의 급여 제공만 부담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청년 인재의 해외 진출을 도와 한민족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현지화한 동포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은 해외 적응력과 국제 감각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세종학당과 온라인 한국어교육 사이트 공동 구축

재외동포재단은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일본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를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이트(study.korean.net/ksi)를 구축해 6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두 기관은 한국어 교육이 취약한 일본과 CIS 지역 재외동포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발했다. 이 사이트 'Studykorean with KSI'는 모든 콘텐츠를 현지어(일본어, 러시아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재외동포재단이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세종학당재단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사이버 한국어 과정 입문, 초급) 강의 수강 등을 통해 우리 동포들의 한국어 실력과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이트 메인 화면

김성곤 동포재단 이사장은 “두 기관이 협업해 만든 한국어 교육 사이트가 마중물이 되어 일본과 CIS 지역 동포사회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2020년 10월 재외동포 차세대와 외국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협력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비행기에서 쓴 비밀 쪽지

임정진 / 그린애플

해외에 있는 한국인 입양인은 현재 약 20만 명이다. 한국전쟁 이후 입양인 대다수가 미국과 유럽 등지로 입양됐다. 잘살기를 바라며 보낸 입양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고국 대한민국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쌓아왔고, 정체성의 혼란으로 힘들어했다. <비행기에서 쓴 비밀 쪽지>는 해외입양인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쓴 6편의 단편을 모은 소설집이다. 한국말도 못 하는 어린아이들이 홀로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그리움을 소설로 담았다. 과거 살기 힘든 시절 해외로 입양 보내졌던 때와 달리, 지금 한국은 민족, 문화가 다양하게 구성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입양인에 대한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그들의 삶을 응하는 한편 지속적 교류와 화합을 통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소설집을 통해 입양인에 대한 공감과 그들과 더불어 사는 동기를 만들어보자.



똑똑, 만나고 싶었어요

김경희/부르크

<똑똑, 만나고 싶었어요>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한인 동포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이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귀국 어르신들의 인생 나눔 모임이 수필집으로 발간되는 결실을 본 것이다. 5명의 영주 귀국 사할린 어르신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한글을 배워 그동안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실로 다양하다. 사할린에 묻힌 아버지를 추억하는 이야기, 해방 전 사할린에서 태어나 러시아에 자녀를 두고 영주 귀국하신 어르신의 이야기 등이 담겨 있다. 수필집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할린에서 가지고 온 사진 자료를 통해 그들의 가슴 아픈 생애사와 역사의 현장감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귀국 어르신들의 수필과 사진을 통해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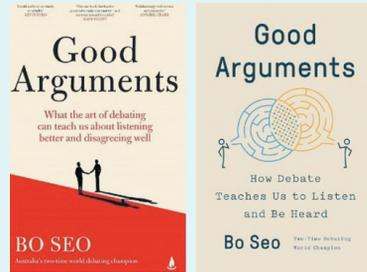
재일민단, 청소년 한민족 정체성 함양 위해 잼버리·문화탐방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은 재일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오는 8월에 '잼버리'와 '문화탐방' 행사를 연다. 일본 전역에서 초등학교생 200여 명이 참여하는 '잼버리'는 8월 2~5일 나가노(長野)현 이나(伊那)시 소재 국립청소년자연의집에서 연다. 이들은 한국어·한국문화를 학습하고, 일본 전역에서 온 참가자들과 '친구 맺기' 행사에 참여한다. 100여 명이 참가하는 '문화탐방 스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뉘서 각각 8월 17~20일과 8월 21~25일에 히로시마(広島)현 히로시마시 소재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연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수업을 듣고 조선통신사 등 고대 한일 교류 역사와 재일동포 역사를 배운다.

캐나다 애국지사기념사업회, 독립운동가 조명 책 6번째 발간

캐나다 애국지사기념사업회(회장 김대역)가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는 6번째 책 '애국지사들의 이야기' (신세림출판사)를 국내에서 펴냈다. 책에는 저항시인 이육사,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주시경 선생,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 역사학자 계봉우 선생, 전설의 영화 '아리랑'으로 독립의 열망을 표출한 나운규 선생, 유관순 열사의 스승 김란사 선생 등 6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12년 전 창립한 애국지사기념사업회는 2014년 '애국지사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해 2018년부터 매년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는 책을 펴내고 있다.



'세계토론대회 챔피언' 호주 동포 서보현 씨, '좋은 토론' 출간

세계토론대회 챔피언 출신의 호주 동포 서보현(28) 씨가 최근 토론의 기술을 알려주는 '좋은 토론(Good Arguments)'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호주 동포 매체인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서 씨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던 10살 때 호주에 이민해 언어 문제로 인한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토론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의 경험과 토론 요령 등을 책에서 소개한다.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호주 아마존 서점 사이트에서 초중등생 대상의 영어 실력 향상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서 씨는 호주 사립 명문고인 버커컬리지 재학시절인 2013년 '세계 학생 토론대회'에 호주 대표팀 주장으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 '토론의 달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하버드대학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조기 입학해 정치학을 전공했다.

일본 고려박물관, '그림책으로 보는 이웃나라 한국·조선' 개최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코리아타운 소재 고려박물관은 '그림책으로 보는 이웃나라 한국·조선'을 개최한다. '그림책으로 한국을 배우는 모임'이 주관한 전시로, 오는 9월 7일부터 2023년 1월 2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림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한국 작가와 재일동포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마련했다.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구름빵'의 백희나, 재일작가 홍영우의 '홍길동' 등 200여 점의 그림책을 선보인다.



영국·헝가리의 젊은 한인 클래식 연주자들, 런던서 합동 공연

영국과 헝가리 음악학교의 젊은 한인 연주자들이 세계 클래식 음악 산업 중심지인 런던에서 함께 무대에 올랐다. 주영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영국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은 6월 16일(현지시간) 런던 중심부 피커딜리 서커스의 세인트제임스 교회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 음악원(Franz Liszt Academy of Music)의 이현경 피아니스트가 드뷔시의 베르가마스카 모음곡 제3곡 '달빛'과 헝가리 출신 작곡가인 죄르지 리게티의 무지카 리체르카타 7번을 연주했다. 이어 런던 왕립음악대학(Royal College of Music)의 레베카 박, 최수지, 이안 림이 드뷔시의 '플루트, 비올라, 하프를 위한 소나타'와 아리랑을 들려줬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oc@okf.or.kr)로 보내주세요

다문화와 국내 체류 고려인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이미 들어섰다고 한다. 이 길목에 급격하게 유입되는 집단 중 하나가 유라시아 출신 고려인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출입국이 어려워지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입국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국내에는 현재 8만여 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사회가 형성돼 있다. 앞으로 출입국이 수월해지고 그동안 정체됐던 입국 수요와 불안정한 구(舊)소련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고려인들의 한국 유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인들은 국적상으로는 외국인이면서도 민족적으로는 한민족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재외동포법상 분명한 한인 동포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고려인들을 대하는 정책은 다문화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영역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다문화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경기도 안산시도 마찬가지다. 동포 문제를 다문화 문제에 뭉뚱그려 넣고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노동 인력 관점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안산시 통계에 따르면,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8만4천여 명이다. 이중 조선족이 4만5천여 명, 고려인이 1만8천 명으로 총 6만3천여 명이 한민족이다. 단순히 우리와 다른 외국인, 혹은 다문화인이라 여겨 다문화·외국인 정책으로 다뤄왔던 사람들의 75%가 사실은 한인 동포인 셈이다. 그러니 동포 문제가 보일 리가 없다.

중앙정부의 동포 정책도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외국인 산업인력 문제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 여전히 H2나 F4 비자를 통해 동포 출입국자 수를 조절하고 노동권도 제한하고



김승력
고려인센터 미르 대표

있다.

750만 동포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재외동포재단이 나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고충을 다 해결하기에는 조직 규모가 작다. 더구나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100만여 명 동포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의 고민을 시작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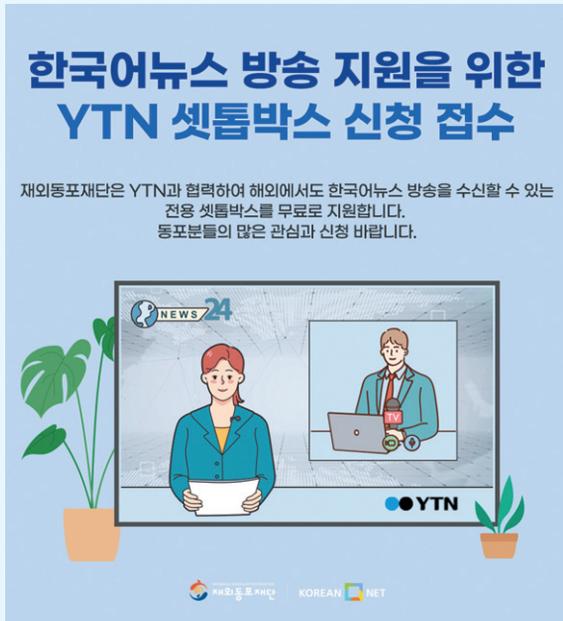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 정책으로는 고려인들의 특수한 역사·문화적 배경과 민족정체성 문제를 다룰 수 없고,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정착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며, 중앙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도 국내 체류 동포 문제를 구석에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임금, 3D 업종에서 일하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할만하다,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럼 “뭐가 힘드냐” 고쳐 물어보면 “나는 까레이쯔(한인)인데, ‘러시아 사람이다.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화가 치밀고 기운이 빠진다”고 호소한다.

고려인들은 자신들을 ‘까레이쯔’이라 부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증명서와 여권에는 한인으로 기재돼 있다.

160여 년간 유라시아를 떠돌면서도 한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잣대나 다문화 문제로 취급해서는 해법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고려인을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 동포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어느 범주에 놓고 정책을 펴느냐가 애매해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통합과정에서 어떤 갈등을 겪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창**

한국어뉴스 방송 해외수신을 위한 YTN 셋톱박스 신청 접수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대상 실시간 한국어뉴스 제공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유대감 형성 및 상호 이해·소통, 동포들의 모국어 유지에 기여하고자 24시간 보도전문채널 YTN과 협력하여 해외에서도 한국어뉴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전용 셋톱박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중에는 북미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셋톱박스 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니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한인회, 한글학교 등 한인 단체 및 재외공관
- 기타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단체 등

2. 지원 내역

- YTN 전용 셋톱박스 및 부속품(국외 발송비용 포함)

*YTN 전용 셋톱박스란?

- 인터넷 기반으로 YTN 실시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
- 장치 설치 및 사용을 위해 인터넷 사용환경(유선 LAN, 무선 Wi-Fi)이 갖춰져야 하며, 인터넷 속도가 2Mbps 이상 되어야 안정적인 고화질 방송수신이 가능함

3. 지원 방법

- (1) 희망 단체에서 셋톱박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022년 7~9월 중 수시 접수

- (2) 재외동포재단과 YTN이 신청내용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 (3) 셋톱박스를 수령한 단체는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필히 [셋톱박스 수령 및 설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제출처 및 문의

- YTN 글로벌센터 플랫폼서비스팀: 이메일 global@ytn.co.kr

전화: +82-2-398-8671~3

- 자세한 내용은 동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s://www.korean.net/portal/customer/pg_notice.do?srCategoryId=3265&mode=view&articleNo=1001065837#/list)

2022년 6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이사장

- 6월 15일: 외교부 신규 외무영사직 대상 특강
- 6월 23일: 한상자문위원회 면담

- 6월 26일: 한국-카자흐스탄 수교 20주년 기념 공연 관람
- 6월 29일: 세계언론인협회 심포지엄 만찬 주재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